

# 조선대 운동부 “모두 하나로 뭉쳐 옛 명성 되찾겠다”

3일간 14개 종목 합동 훈련  
소속 선수 200여명 전원 참가  
혹한 속 정신력·체력 집중 강화  
소속감·자부심 형성에도 도움

“끝까지 뛰자! 조선대 화이팅!”

입동설한에도 7일 오전 조선대 캠퍼스 일원에는 힙한 함성이 울려 퍼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조선대가 위치한 동구 서석동의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은 각각 영하 2도와 3도.

함박눈까지 펄펄 쏟아지는 악천후에도 14개 종목으로 이뤄진 200여명의 조선대 운동부 선수단은 3개 조로 나뉘어 체육관과 대운동장, 108계단, 깃대봉 등에서 훈련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조선대 운동부가 모두 한곳에 모인 이유는 합동 훈련이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매일 오전 진행된 합동 훈련은 2000년대 중반부터 20년 이상 이어져 온 조선대 운동부 만의 전통으로 종합 스포츠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다.

합동 훈련을 통해 조선대 운동부는 정신력과 체력 강화에 집중한다. 올해 합동 훈련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19년 이후 6년 만에 재개되는 만큼 입학 예정인 1학년년부터 졸업을 준비하는 4학년까지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소속감과 자부심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대 운동부 선수단이 7일 오전 동구 조선대 본관 앞 언덕길에서 쾅거루 뿔을 뿜며 정신력과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합동 훈련에 임하고 있다.

부심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대 운동부 선수단은 추운 날씨에도 얇은 트레이닝복 또는 반팔 만을 착용하고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훈련일제가 돼 올해는 더 발전된 성적을 거두겠다는 확고한 의지다.

조선대 하키부 주장 최윤성(체육학과 4)은 “하키부끼리 훈련을 하다가 모든 운동부가 함께 훈련을 하면서 종목을 가리지 않고 친해질 수 있는 계기”라며 “서로 파이팅도 외치고 힘도 불어넣어 주니까

더 활기차게 훈련을 할 수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추운 날씨에 108계단을 뛰는 것이 굉장히 힘든 훈련인데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다 보니 팀워크도 강해진다”며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단합이 잘 돼 올해는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혔다.

이번 합동 훈련에는 육성 종목과 비육성 종목을 가리지 않고 14개 운동부가 모두 참여했다. 레슬링부와 축구부, 핸드볼부가 1조, 농구부와 역도부, 유도부, 육상부, 테니스부, 하키부가 2조, 검도부와 배구부, 양궁부, 태권도부가 3조를 이뤘다.

합동 훈련을 통해 조선대 운동부는 지난해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선대 운동부는 지난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태권도부가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 육상부가 은메달 2개, 레슬링부가 은메달 1개 등 무더기 메달 사냥에 성공했다.

또 축구부가 남자대학부 은메달, 배구부가 남자대학부 동메달을 각각 차지하며 2024 광주 체육 유공자 시상식에서 한영일 축구부 감독이 올해의 감독상, 박성필 배구부 감독이 광주시장상을 수상하는 등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계행 조선대 체육실장은 “합동 훈련을 통해 선수들의 체력과 정신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것”이라며 “지도자와 선수가 하나 돼 각자의 목표는 물론 우리 대학의 명예를 드높이고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원 역시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글·사진=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전남드래곤즈가 김현석 신임 감독을 보좌할 코칭스태프 구성을 마쳤다. 왼쪽부터 김교빈 골키퍼 코치와 신용재 피지컬 코치, 인창수 수석 코치, 김현석 감독, 김종영 2군 코치, 송한복 코치.

## 전남드래곤즈, 김현석 사단 구성 마무리

‘감독 경험’ 인창수 수석 선임



김현석 신임 감독 체제로 1부리그 승격에 재도전하는 전남드래곤즈가 사단 구성을 완료했다. 프로 경험이 풍부한 지도자들을 대거 수혈하며 노련한 경기 운영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드래곤즈는 2025시즌 코칭스태프 구성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남 코칭스태프는 오는 14일까지 광양 전남드래곤즈 연습구장에서 1차 동계 훈련을 실시한 뒤 15일 태극 방콕으로 떠나 2차 동계 훈련에 돌입한다.

김 감독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할 역할에는 인창수 수석 코치가 낙점됐다. 인 코치는 내셔널리그 안산할렐루야FC 코치와 감독 대행으로 K3리그 포천시민축구단 감독, K리그2 서울이랜드FC 코치와 감독 대행, 수석 코치, 한국 20세 이하 국가대표팀 코치, 한국 여자 17세 이하 국가대표팀 감독, 김포FC 수석 코치 등을 역임했다.

현역 시절 전남 소속으로 활약했던 송

한복 코치와 김시훈(개명 전 김교빈) 골키퍼 코치도 지도자로 팀에 복귀하게 됐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남에 몸담았던 송 코치는 내셔널리그 천안시청 축구단 플레이 코치를 시작으로 K3리그 천안시축구단 코치, K리그2 안산그리너스 FC 코치와 감독 대행을 지냈다.

2010년 전남에 입단하며 프로에 입문해 2011년과 2016년에도 함께했던 김 코치는 성남FC U-15 골키퍼 코치를 시작으로 K3리그 당진시민축구단 골키퍼 코치와 K리그2 성남FC 골키퍼 코치, K리그2 창원FC 골키퍼 코치를 지냈다.

김 감독과 함께했던 김종영 2군 코치와 신용재 피지컬 코치도 전남에 합류했다. 김 코치는 내셔널리그 울산현대미포조선 돌고래를 시작으로 K리그2 안산그리너스FC 코치와 경남FC 수석 코치, 대전하나시티즌 수석 코치, 충남아산FC 코치를 맡았다.

신 코치는 건국대 축구부를 시작으로 전주기전대 축구부와 독립구단 양천 TNT FC, 울산HDFC U-18(현대고 축구부), K리그2 충남아산FC에서 피지컬 파트를 책임졌다.

한규빈 기자

## 김성한 해설위원, 제13대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 당선

62표 중 38표... 득표율 61.3%

김성한 CMB광주방송 해설위원이 제13대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에 당선됐다.

7일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실시된 회장 선거 개표 결과 기호 1번 김성한 후보가 38표를 얻어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기호 2번 박병석 후보(전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전무이사)는 24표를 기록했다.

이로써 김 해설위원은 2028년까지 4년간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를 이끌게 됐다. 김 해설위원은 나흔 제12대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17일 대의원총회를 통해 신임 회장에 취임한다.

해태타이거즈와 KIA타이거즈에서 선수와 코치, 감독을 두루 거친 김 해설위원



김성한 제13대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 당선인.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제공

은 프로를 넘어 아마추어 야구에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그는 현역 시절

선동열, 김용우 등과 해태 왕조를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받았고 특유의 오리궁둥이 타법으로도 이목을 끌었다.

김 해설위원은 타이거즈를 떠난 뒤에도 한국 야구 국가대표팀 타격 코치, 전력분석원, 수석 코치와 군산상고(현 군산상일고) 감독, 한화이글스 수석 코치 등을 지냈다. 또 KBO 경기운영위원, 상벌위원, 기술위원과 MBC ESPN 해설위원, 한국 야구 국가대표팀 기술위원 등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김 해설위원은 공약으로 △선수 등록비 폐지 △무등야구장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ABS) 도입 △체육 특기자 배정 확대 △전용 구장 확보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후원을 유치하고 협조를 얻어내 지역 야구와 소프트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구상도 내놴다.

한규빈 기자

## ‘골스튜디오 협업’ 광주FC, 새 K리그 유니폼 공개



광주FC가 골스튜디오와 협업을 통해 제작한 2025년 K리그 유니폼 ‘The Shine Gwangju’를 공개했다.

광주FC가 새 시즌 K리그 무대를 수놓을 유니폼을 공개했다.

광주는 새로 공식 의류 파트너십을 체결한 골스튜디오와 협업을 통해 제작한 2025년 K리그 유니폼 ‘The Shine Gwangju’를 7일 공개했다.

새 유니폼은 빛고을로 불리는 광주시의 상징인 빛을 콘셉트로 도시 정체성을 강조하고 구단의 찬란한 순간을 팬들과 함께 맞이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또 필드 플레이어와 골키퍼의 흙, 어웨이까지 네 가지 유니폼 디자인을 모두 동일하게 제작해 통일성을 부여했다.

특히 반짝이는 빛을 표현하기 위해 엠블럼 하단의 다섯 개의 별빛을 전자 기법으로 녹여내 입체감을 살렸고, 실리온 재질의 엠블럼을 제작 및 부착해 원단의 색상이 엠블럼에 이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전체적인 유니폼의 퀄리티를 높였다.

메인이 될 필드 플레이어 홈 유니폼은 구단 상징색인 노란색에 와인색을 포인트로 활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한규빈 기자